



26번째 가족사진을 향해

글·사진 **모순영** 겨울말큰사전 사무처장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위원회 제25차 협의

2015년 12월 7일~13일 중국 대련



25번째 찍은 가족사진

남북이 함께 찍은 25번째 단체 사진이다. 우리 편찬사업회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개성, 금강산, 평양, 중국 베이징, 선양 등에서 북측 연구원들을 만날 때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단체로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남과 북이 함께 공유한 사계절이 보인다. 봄에는 얇은 천에 꽃무늬가 들어 있는 셔츠를 입은 남측 연구원, 여름에는 하늘색 바탕에 붉은 체크 무늬가 그려진 와이셔츠를 입은 북측 연구원, 가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짙은 갈색 점퍼를 입은 남과 북의 연구원들, 겨울에는 두툼한 니트로 목까지 감싸고 있는 남과 북의 연구원들이 보인다. 그러다 문득 곧 찍을 26번째 가족사진이 궁금해진다.

지난 2015년 12월 중국 대련에서 공동회의가 열린 이후 현재까지 남북 어디에서도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어 회의 재개에 대한 갈망이 더 크다. 아마도 다음에 남과 북이 함께 찍을 26번째 가족사진은 그동안 못 챙긴 서로의 안부를 묻느라 유난히 왁자지껄할 것만 같다.

금강산도 식후경?


‘금강산도 식후경’은 아무리 아름다운 금강산이라 해도 배가 불러야 절경으로 보이지 배가 고프면 그 풍경을 즐길 수 없다는 의미의 문구다. 다만, 실제로 금강산을 다녀온 내 입장에서는 과연 앞의 비유가 적절한가 싶다. 물론 반은 농담이지만 말이다. 만약 배고픔과 금강산 구경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꽤 난감해질 것만 같다. 남북이 함께 만들고 있는 《거례말큰사전》에 올림말(표제어)로 선정된 금강산(金剛山) 속담 풀이를 보니 ‘금강산 구경도 먹은 후에야 한다’,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 ‘금강산 그늘이 관동 팔십리 (간디)’, ‘금강산 상상봉에 물 밀어(일어) 배 띄워 평지 되거든’, ‘금강산도 식후경’으로 게재되어 있다. 지난 2015년 가을, 공동회의를 끝내고 짬을 내어 금강산을 북측 편찬위원과 함께 다녀온 나는 이 사진을 보며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적어도 한 끼 정도 굶더라도 금강산은 여전히 절경으로 보이지 않을까? 게다가 가을 금강산인 풍악산(楓嶽山)이라면 말이다.





서울과 평양 간 거리는 196km

서울에서 평양까지 거리는 얼마일까? 196km이다. 자동차로 시속 80km/h로 달린다면 3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다. 실제 거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동안 공동회의는 가까운 길을 멀게 돌아갈 경우가 많았다. 때로는 버스를 타고 개성으로, 금강산으로 향했다. 더 먼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 베이징이나 선양을 경유해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하거나 중국에서 회의를 열었다. 7박 8일 동안의 정해진 시간 동안 남과 북은 총 33만 개의 올림말 중 남아 있는 2만3천여 개의 올림말을 선정해야 하고, 사전에 실을 남북 원고를 몇 차례에 걸쳐 합의하려면 이동 시간도 늘 빠듯하다.

지난 14년 동안 남과 북은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남과 북의 거리를 두고, 중국에서 9번, 북한에서 15번, 서울에서 1번을 만났다. 향후 열리는 제26차 공동회의는 남과 북 모두의 수고스러움을 덜기 위해서라도 서로에게 조금은 가까운 곳에서 열리기를 기대해본다. 



모순영

이화여대 북한학 박사. 한국작가회의 사무차장을 역임했으며, 한반도평화포럼과 북한연구학회 정회원, 사단법인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북한이탈여성지원과연대' 비상임감사,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한울아카데미, 공저)을 펴냈다. 현재 편찬사업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다.